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려라

(출14:13-14)

서론: 우리의 삶은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와 사건, 어려움에 영향받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만큼 축복을 누리고, 능력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일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후대들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강단을 통해 '말씀이 다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언약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1. 신앙생활은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함

가. 나의 신앙생활이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 일이 안 될수록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 말씀을 따라감으로 신앙생활을 습관이나 겉핥기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말씀에 뿌리내림으로 하나님의 당연한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출14:13-14).

- 광야와 같은 길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로서 불신앙과 염려에 빠져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 나의 복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말씀과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려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만큼 보여지는 것

가. 사람과 만남을 통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를 보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 복음에 깊이 뿌리내려 모든 만남이 축복임을 알고,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옵소서.
- 복음을 모르게 하고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상처에서 벗어나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도 치유될 수 있는 복음적 분위기가 교회 속에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누림으로 과거의 모든 것이 발판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주의 종,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결론: 언약이 이해되고 붙잡혀질 때 모든 사람과 사건의 배후와 배경을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복음에 깊이 뿌리내림으로 사람을 수용하고, 답을 가진 자로서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만큼은 깊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못 하고 안 될 것 같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얻은 것이 없을수록, 일이 안 될수록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한 주간 모든 것이 기회임을 알고,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는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